

<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<주일말씀 주제>를 인식시켜 주고, <잠언>을 전해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한 절, 한 절 잠언을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라.

1.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>와 함께하면, ‘자기 스스로의 시험’에도 들지 않고, ‘타인이나 사탄의 시험’에도 들지 않는다.
2.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한다는 것>은 언제나 어디서나 ‘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’이다. ‘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’이다.
3. <삼위와 주와의 약속>을 지키고 살면, 어디에 있으나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자’다.
4. <삼위와 주와 약속한 것>을 지키면, ‘스스로’도 기쁨과 희망이 넘쳐서 좋아하며 힘을 받게 되고, ‘삼위도 주’도 함께해 주신다.
5. 만일 <자기가 삼위와 주께 약속한 것>을 지키지 않으면 ‘죄’

가 되고, <삼위와 주가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>도 깨지게 된다.

6. 사람끼리도 <어떤 물건>을 만들어 주면 사 간다고 해 놓고, 약속을 어기고 안 사 가면 ‘책임의 문제’가 생기듯, 하나님께도 약속해 놓고 행하지 않으면 ‘문제’가 생긴다.

7. 하나님도 예수님도 <하나님께 약속한 것>은 행여 ‘해가 되는 일’이 생겨도 지키라고 하셨다.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다.

8. <주와의 약속>은 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약속’이나 다름없다.

9. <기도 시간 약속>, <예배 약속>, <섭리사 안의 온갖 약속들>, <주 안의 약속들>이다. 자신이 스스로 좋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이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으니, 그 약속들을 꼭 지켜야 된다.

10. 특히, <생명에 대해 기도한 약속>은 모두 ‘귀한 것들’이니 지켜야 된다.

11. <기도 약속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자고 약속해 놓은 것’이다. 약속했으니,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든 안 오든 ‘약속’을 지키러 오셨다 가신다.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‘기도’를 약속했든지, ‘어떤 다른

것' 을 약속했으면, 꼭 지켜야 된다.